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22 HELVIDIUS PRISCUS THE SENATOR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Helvidius Priscus the Senator」 (원서 PDF 159~163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4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황제가 목숨을 쥐고 있을 때, 무엇이 끝까지 나의 몫으로 남는가."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는 삼니움 지방의 마을 클루비아이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난 평민이었다. 부유한 집안에 입양되고 트라세아의 딸과 결혼한 그는, 다섯 황제에 걸친 경력 동안 호민관과 법무관을 지내며 로마의 주요 인물로 올라섰다. 장인 트라세아가 죽은 뒤 마케도니아로 추방되었다가 돌아온 그는, 원로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이고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1,927년 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연단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 노트는 본문 네 쪽의 짧은 장을 열여섯 문항으로 자른다. 황제의 이름이 줄줄이 이어지는 장이므로, 출제자는 황제 이름 하나, 숫자 하나를 바꿔 묻는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1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160쪽 ¶5~¶6) / 황제의 몫과 나의 몫 — 황제 앞의 문답(162쪽 ¶2 · 인용 · ¶3) / 오늘 들리지 않아도 기록에 남는다(163쪽 ¶1 · 둘째 인용)
4~5	**밑줄 함축 의미**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 · to cloak a useless leisure with a pretentious name(160쪽 ¶3) / a game of musical chairs(161쪽 ¶6) / the material life gave him(160쪽 ¶6) / a death row holding cell(162쪽 ¶6) / take a leaf out of Roman history(163쪽 첫 인용)
6	지칭 추론	he · the old man이 헬비디우스 · 트라세아 사이를 오가는 160쪽 ¶7(as Brutus had = 카토 집안에 장가듦) / 161쪽 ¶3 it(careened) · his beloved father-in-law / ¶6 himself / 162쪽 ¶6 the exile · him · he
7~8	내용 일치·불일치	출신(160쪽 ¶1~¶2: 링컨 · 클레이 · 대처 · 메르켈 · 군인의 아들 · 카라케니족 · 삼니움 · 클루비아이 · 다섯 황제) / 오토 석 달 · 갈바 매장 허가 · 법무관 · 비텔리우스 여덟 달 · 70년 지출 통제권 다툼(161쪽 ¶7)
9~10	**어법**	must have p.p. · 간접의문문 앞세우기 · what절 주어/보어 · would have been like + 동명사 · enough ~ that · could not have p.p. · enjoy + 동명사 · No sooner had ~ than · 형용사 + enough to V · thus + 동사 + 주어 도치 · 전치사 + whether · take to -ing · 가주어 It + not to V · so long as · tired of being p.p. · It was not A but B that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unitive · abused · convincing↔feeble · higher↔lower · begrudging(161쪽 ¶1~¶2) / naive · passing↔lasting · fair-weather(161쪽 ¶5~¶6) / disdain · impudence · unearned↔earned · commoner(161쪽 ¶8 ~ 162쪽 첫 줄) / immortal↔mortal · undermine(162쪽)
12	빈칸 추론	nothing unearned is worth respect(161쪽 ¶8) / it is mine to die, but not in fear(162쪽 인용) / not words ... but his actions(162쪽 ¶8)
13	문장 삽입	162쪽 ¶4~¶7: 카피톨 건설 · 유피테르 신전 봉헌 → It was not to be → 다시 추방 · 가까이 둠 → 사형수 감방 같은 곳 → 처형 명령
14	무관한 문장	161쪽 ¶5 귀환(갈바의 소환 → 루틸리우스와 다른 선택 → 지나가는 폭정이기를 바람)에 다른 대목의 사실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161쪽 ¶3~¶4: 경력의 세부는 수수께끼 → 66년 트라세아 기소 → 헬비디우스의 브루투스 · 카시우스 동조 혐의가 증거로 → 자결을 도움 → 마케도니아로 추방
16	요약문 완성	버드의 연설(163쪽 첫 인용): 자기 생각을 말하다 죽은 헬비디우스 ↔ 대통령이 재촉하면 신념에 어긋나도 겁먹는 의원들 → 헬비디우스를 기억하자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이 장에는 숫자가 많다 — 25년(159쪽 표제 · 본문은 '25년 또는 그 이전') · 75년(표제) · 다섯 황제 · 56년 · 66년 · 두 자녀 · 2년 · 석 달 · 여덟 달 · 70년 · 1,927년 · 85세. 황제도 줄줄이 나온다(네로 → 갈바 → 오토 → 비텔리우스 → 베스파시아누스). 전하는 사람은 셋(타키투스 · 수에토니우스 · 에픽테토스), 땅 이름도 겹친다(클루비아이 · 삼니움 · 아카이아 · 마케도니아 · 시리아 · 로마).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평민 출신 ↔ 부유한 집안 출신 — 부유한 집안은 입양된 곳, 개인 이름 ↔ 황제의 이름, 유일한 의원 ↔ 여러 의원, 고발을 거둠 ↔ 끝까지 밀고 감, 갈바가 소환 ↔ 네로가 소환, 가까이 둠 ↔ 멀리 보냄). 출신 · 황제 이름 · 행동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Helvidius Priscus the Senator」 (160~163쪽)

전기형(평범한 출신 → 스토아 교육 → 입양과 운명 → 트라세아의 사위 → 호민관 → 트라세아 재판과 추방 → 귀환과 순진한 믿음 → 황제가 잇따라 바뀜 → 베스파시아누스와의 대립 → 황제 앞의 문답 → 다시 추방 · 처형 → 1,927년 뒤의 상원). 핵심 축은 **황제의 몫(죽이고 추방함) vs 나의 몫(두려움 없이 말하고 떠남)**, 그리고 **말(기념) vs 행동(유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0 ¶1~¶2	출신	보잘것없는 출신에서 나라의 정치 중심으로 — 링컨 · 클레이 · 대처 · 메르켈 / 클루비아이(삼니움 지방 카라케니족의 땅)에 주둔한 군인의 아들 · 평민 · 다섯 황제에 걸친 경력
160 ¶3	교육	25년 또는 그 이전 출생(확신) · 진지한 학생이었음이 틀림없음 / 타키투스: 여가를 꾸미려는 공부가 아니라 운의 변덕에 대비한 공부 · 어린 시절의 스승은 스토아
160 ¶4	입양	갈리오 · 스키피오처럼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에 입양 — 아마 시리아 총독 콰드라투스 밑의 레가투스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 집안 /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름
160 ¶5~¶6	운명과 재료	이름 없는 평민의 아들 → 떠오르는 사람 / 세네카: 운명은 낮추기도 높이기도 함 /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 삶이 준 재료를 헛되이 쓰지 않음
160 ¶7 ~ 161 첫 줄	트라세아의 사위	아카이아의 재무관 → 트라세아의 딸 판니아와 결혼(브루투스가 카토 집안에 장가든 것과 비슷 · 다만 장인이 살아 있음) / 자유의 정신 · 삶의 모든 의무 / 로마의 아름다운 집
161 ¶1~¶2	호민관	56년까지 평민의 호민관 · 가혹한 재무 관리 사비누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킴 → 네로가 더 높은 기준을 선언(마지못한 개혁)
161 ¶3~¶4	장인의 재판	경력의 세부는 수수께끼 → 66년 트라세아 기소 · 헬비디우스의 브루투스 · 카시우스 동조 혐의가 증거로 / 자결을 도움 → 아내 · 두 자녀와 마케도니아로 추방
161 ¶5~¶6	귀환	2년 뒤 네로 사망 · 갈바가 소환 · 루틸리우스와 달리 돌아옴 / 마르켈루스 탄핵 고발 → 믿음이 흔들려 고발을 거둠 / 갈바 사망 · 네 황제의 해(의자 뺏기 놀이)
161 ¶7	바뀌는 황제들	오토 석 달(갈바 매장 허가) → 법무관 · 비텔리우스(여덟 달)와 불화 → 70년 베스파시아누스와 지출 통제권 다툼
161 ¶8 ~ 162 ¶1	경멸	스토아다운 경멸이 긴장을 높임 / 스스로 얻지 않은 것은 존경할 가치가 없음 → 개인 이름으로 부름 · 평민처럼 대함 · 포고에 칭호를 쓰지 않음 / 무모함인가, 거부인가, 지침인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2 ¶2~¶3	황제 앞의 문답	수에토니우스: 직접 반대 / 에픽테토스의 문답: 원로원에 가지 마라 → 의원인 한 간다 · 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나의 몫 / 너는 악하라, 나는 선하겠다
162 ¶4~¶7	끝	오래가지 못할 태도 · 카피톨 건설과 유피테르 신전 봉헌 감독 / 타키투스: 외롭지만 희망을 품은 인물 → 그렇게 되지 않음 / 다시 추방(가까이 둠) → 처형
162 ¶8 ~ 163 끝	유산	아내가 기념 작품을 의뢰 · 유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 · 에픽테토스 · 마르쿠스 / 1,927년 뒤 로버트 버드(85세)의 연설 — 헬비디우스를 기억하자 · 헌법과 기구를 위해 섰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출신	보잘것없는 평민 · 이름 없는 사람의 아들	로마의 주요 인물 · 다섯 황제에 걸친 경력
공부의 목적	쓸모없는 여가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감춤(대부분의 젊은이)	운의 변덕에 더 단단히 대비해 공적인 삶으로
선과 악의 기준	권력 · 높은 가문 · 의지 밖의 모든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 선, 비열한 것만 악 — 나머지는 선도 악도 아님
운명이 주는 것	낮춤 · 마음을 부숨	높임 · 행운 — 어느 쪽이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
재무 관리 사비누스	권한을 남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처분	호민관 헬비디우스 — 가난한 사람들을 지킴 · 더 높은 기준
귀환의 선택	루틸리우스 루푸스 — 머물던 곳에 남아 로마의 광기를 피함	희망을 품고 돌아옴 — 네로는 지나가는 폭정이었기를
제도에 대한 믿음	순진한 믿음 → 마르켈루스 탄핵 고발	곧 흔들림 → 고발을 거둠
황제를 부르는 법	황제의 이름 · 칭호	개인 이름 · 평민처럼 — 스스로 얻지 않은 것은 존경할 가치가 없음
황제 앞의 몫	죽이는 것 · 추방하는 것(황제의 몫)	두려움 없이 죽고 슬픔 없이 떠나는 것(나의 몫)
유산을 정하는 것	말 — 아내가 의뢰한 기념 작품	행동 — 에픽테토스가 영감을 받고 마르쿠스가 본보기로 삼음
버드가 본 의원들	대통령이 재촉하면 신념에 어긋나도 겁을 먹음	헬비디우스를 기억하라 — 오늘 들리지 않아도 기록에 남음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Helvidius Priscus	B. **25 AD** · Origin **Cluviae** · D. **75 AD**(159쪽 표제) · 발음 Hel-VID-ee-us PRISS-cuss · 본문은 '25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씀(160쪽 ¶3) · 저자가 붙인 이름 = the Senator
출신	**군인의 아들** · 남부 이탈리아 **삼니움** 지방 **카라케니족**의 땅, **클루비아이** · 평민(plebeian) · 경력은 **다섯 황제**의 치세에 걸침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같은 이야기의 정치인	에이브러햄 링컨 · 헨리 클레이 · 마거릿 대처 · 앙겔라 메르켈 —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권력을 얻고, 자신이 나온 사람들을 도움
Tacitus	재능을 고등 학문에 바침(운의 변덕에 대비) · 어린 시절의 스승은 스토아 / 헬비디우스가 트라세아에게서 '자유의 정신'을 배웠다고 전함 / 외롭지만 희망을 품은 인물로 그림
입양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 여러 세대 앞의 **스키피오**처럼 / 아마(likely) 시리아 총독 **콰드라투스** 밑의 레가투스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 집안 · 새 가문의 이름을 씀 · 만난 경위는 모름
Fannia	**트라세아**의 딸 · 헬비디우스가 **아카이아**의 재무관(quaestor)이 된 뒤 결혼 · 비유 = 브루투스가 카토 집안에 장가든 것(다만 장인이 살아 있음) · 두 자녀
56 AD	56년까지(By 56 AD) **평민의 호민관** · 젊은 재무 관리 **올부트로니우스 사비누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킴 → **네로**가 더 높은 기준을 선언
66 AD	트라세아가 네로에 대한 음모 혐의로 기소 · 헬비디우스의 **브루투스 · 카시우스** 동조 혐의(alleged)가 증거로 / 자결을 도움 → 아내 · **두 자녀**와 **마케도니아**로 추방
Galba	**2년** 뒤, 네로가 죽은 뒤 헬비디우스를 로마로 **소환** · 몇 달 만에 사망 → '네 황제의 해' / 대비: 머물던 곳에 남은 **루틸리우스 루푸스**
Eprius Marcellus	트라세아와 헬비디우스를 박해한 사람 · 헬비디우스가 탄핵 고발 → 믿음이 흔들려 **고발을 거둠**
Otho · Vitellius	오토 = **겨우 석 달**(헬비디우스가 갈바를 묻을 허락을 받음) / 오토가 죽은 뒤 헬비디우스는 **법무관(praetor)** → 비텔리우스와 불화 · 비텔리우스는 **여덟 달**
Vespasian	**70년** 지출 통제권(원로원 vs 황제) 다툼 · **시리아**에서 개선 · 헬비디우스는 그를 **개인 이름**으로 부르고 평민처럼 대한 **유일한** 원로원 의원 · 다시 추방 → 처형 명령
Suetonius · Epictetus	수에토니우스: 직접 반대하기 시작함 / 에픽테토스: 황제와의 문답을 전함 · 그에게서 영감을 받음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본보기로 삼음
공사	새 **카피톨** 건물의 건설과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의 봉헌을 감독
Robert Byrd	**1,927년** 뒤 · 가난하게 자라 입양됨 · 상원 의원 · **85세**에 '안보'라는 이름의 대통령 월권에 항의 ·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를 기억하자 · 헌법과 기구를 위해 섰다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Helvidius Priscus the Senator」 (원서 PDF 160~163쪽) · 4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2-1 군인의 아들, 운명이 준 재료 160쪽 ¶1~¶6

원문 위치 원서 160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works their way from humble origins to the great body of government	밑줄 의미: 보잘것없는 출신에서 나라의 정치 중심까지 스스로 올라감
▲	¶1 둘째 문장	The politician who comes from nothing, achieves great power, and uses it ... is the story of	who 뒤 동사 셋 병렬 + 본동사 is
★	¶1 둘째~셋째 문장	Abraham Lincoln and Henry Clay ... Margaret Thatcher and Angela Merkel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2 첫 문장	was born the son of a soldier stationed in	be born + 명사 보어 / 과거분사 후치
★	¶2 첫 문장	the Caraceni tribe of the Samnium region, in the town of Cluviae	지명 —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	¶2 둘째 문장	these humble plebeian origins	반전 후보 → noble / 불일치 함정(부유한 집안은 입양된 곳)
★	¶2 둘째 문장	a career that spanned the reigns of five emperor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3 첫 문장	Given the dates ... we can be confident he was born in 25 AD or earlier, and must have ... been	Given = ~을 고려하면 / must have p.p.
◆	¶3 둘째 문장	to cloak a useless leisure with a pretentious name	밑줄 의미: 하는 일 없는 여가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
◆	¶3 둘째 문장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	밑줄 의미 1순위: 어떤 운이 와도 견딜 수 있게
▲	¶3 셋째 문장	counted “only those things ‘good’ which are morally right	count + O + 보어 / which의 선행사 those thing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첫 문장	Like Seneca's brother Gallio, and like Scipio several generations before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4 첫 문장	likely that of Helvidius Priscus	추측 보존: likely(아마) / that = the family
▲	¶4 둘째 문장	How young Helvidius ... met these allies we are not sure.	목적어(간접의문문) 앞세우기
▲	¶5 둘째 문장	Fortune does that, Seneca had written, brings us low, as well as proud.	삽입절 + bring + O + 형용사 / A as well as B
★	¶6	What matters is what we do with either one	주장 1순위 / what절 주어 + what절 보어

내용

보잘것없는 출신의 아이가 스스로 길을 열어 나라의 가장 큰 정치 기구에 이르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큰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다시 손을 뻗어 자신이 나온 사람들을 돕는 정치인의 이야기는 에이브러햄 링컨과 헨리 클레이의 이야기다. 마거릿 대처와 앙겔라 메르켈의 이야기이며,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헬비디우스는 이탈리아 남부 삼니움 지방 카라케니족의 땅, 클루비아이라는 마을에 주둔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이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에서 일어나 로마의 주요 인물이 되었고, 그의 경력은 다섯 황제의 치세에 걸쳐 있었다. 처음 공직을 맡은 시기로 보아 그가 서기 25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는 어려서부터 헌신적이고 진지한 학생이었음이 틀림없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고등 학문에 바쳤다. 대부분의 젊은이처럼 쓸모없는 여가를 그럴듯한 이름으로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운의 변덕에 더 단단히 대비한 채 공적인 삶에 들어서기 위해서였다.' 타키투스는 또 그의 어린 시절 스승들이 스토아였다고 전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을 선으로, 비열한 것만을 악으로 여기고, 권력과 높은 가문, 그 밖에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처럼, 그리고 여러 세대 앞의 스키피오처럼, 헬비디우스는 부유하고 힘 있는 집안에 입양되었다. 아마도 시리아 총독 콰드라투스 밑에서 레가투스(부관)로 일한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의 집안이었을 것이다. 새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은 젊은 헬비디우스가 어떻게 이 후원자들을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쩌면 양아버지가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군대에서 복무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똑똑한 신예가 학업에서 보인 장래성으로 상속자 없는 부부를 감탄시켰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더는 이름 없는 사람의 평민 아들이 아니라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다. 세네카는 운명이 그런 일을 한다고 썼다.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며, 마음을 부수기도 하고 행운을 안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스토아로 훈련받은 헬비디우스는 삶이 자신에게 준 재료를 헛되이 쓰지 않을 사람이었다.

어법

- **The politician who comes from nothing, achieves great power, and uses it to reach back down and help the people they came from is the story of Abraham Lincoln and Henry Clay.** : 주격 관계대명사 who 뒤에 동사 셋(comes · achieves · uses)이 병렬, 문장 전체의 본동사는 is. the people (whom) they came from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전치사 from이 끝에 남는다. they = politician을 받는 성별 중립 단수 대명사.
- **Helvidius was born the son of a soldier stationed in the southern Italian lands of the Caraceni tribe of the Samnium region, in the town of Cluviae.** : be born + 명사 보어(the son of ~ = ~의 아들로 태어나다). stationed = soldier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주둔한). in the town of Cluviae = 앞의 장소를 좁혀 주는 부연.
- **Given the dates of his first political office, we can be confident he was born in 25 AD or earlier, and must have, from a young age, been a dedicated and earnest student.** : Given ~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는 분사). confident 뒤 that 생략. must have p.p. =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였음이 틀림없다) — must have와 been 사이에 from a young age가 끼어 있다. 원서의 확신(confident) · 추측(must have)을 그대로 살려 옮긴다.

- **"devoted his extraordinary talents to higher studies, not as most youths do to cloak a useless leisure with a pretentious name, but that he might enter public life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 : devote A to B = A를 B에 바치다(to는 전치사). not A but B — A = as most youths do(대동사 do) + to cloak(목적), B = that he might ~(목적의 that절 = so that). better fortified = 주어의 상태를 덧붙이는 과거분사구(더 단단히 무장된 채로).
- **who counted "only those things 'good' which are morally right ... and who reckon power, high birth, and everything else that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will as neither good nor bad."** : count + O + 보어(those things를 good으로 여기다) — which의 선행사는 바로 앞 good이 아니라 those things. reckon A as B = A를 B로 여기다. that is beyond ~ = everything else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 neither A nor B. counted(과거)와 reckon(현재)이 섞인 것은 원서 표기 그대로.
- **How young Helvidius—who took his new family's name—met these allies we are not sure.** : be sure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How ~ met these allies)을 문장 앞으로 꺼낸 구조 = We are not sure how young Helvidius met these allies. 간접의문문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변형 → How did young Helvidius meet은 오답). 줄표 안 = 계속적 who절.
- **Fortune does that, Seneca had written, brings us low, as well as proud. Breaks our hearts as well as gives us lucky breaks.** : does that의 내용을 brings · breaks · gives가 풀어 쓴다. Seneca had written = 삽입절(대과거). bring + O + 형용사 보어(low · proud). A as well as B = B뿐 아니라 A도. 둘째 문장은 주어 Fortune을 생략한 원서의 구어적 표현.
- **What matters is what we do with either one, and Helvidius, trained as a Stoic, would not waste the material life gave him.** : What matters(what절 주어 → 단수 is) + what we do with ~(what절 보어). either one = 낮추는 운이든 높이는 운이든. trained as a Stoic = 주어 뒤에 끼어든 과거분사구(스토아로 훈련받았기에). the material (that) life gave him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umble	보잘것없는, 미천한	lowly, modest	noble
origins	출신, 태생	background, roots	—
plebeian	평민의	common, lowborn	patrician
stationed	주둔한, 배치된	posted, deployed	—
span	(기간에) 걸치다	cover, extend over	—
earnest	진지한, 성실한	serious, sincere	frivolous
cloak (v.)	가리다, 감추다	disguise, mask	reveal
pretentious	허세 부리는, 그럴듯한	showy, affected	modest
fortify	강화하다, 단단히 대비시키다	strengthen, arm	weaken
base (adj.)	비열한, 천한	mean, ignoble	noble
reckon	여기다, 간주하다	regard, consider	—
heirless	상속자가 없는	childless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p-and-comer	떠오르는 사람, 유망주	rising star	has-been
dazzle	감탄하게 하다	impress, amaze	bore

내용 일치 보잘것없는 출신에서 나라의 정치 중심으로(링컨 · 클레이 · 대처 · 메르켈) · 군인의 아들 · 삼니움 지방 카라케니족의 땅 클루비아이 · 평민 · 다섯 황제 · 25년 또는 그 이전 출생(확신) · 진지한 학생이었음이 틀림없음 · 타키투스: 여가를 꾸미려는 공부가 아님 · 어린 시절의 스승은 스토아 · 갈리오 · 스키피오처럼 입양 · 아마 콰드라투스 밑의 레가투스 집안 · 만난 경위는 모름 · 세네카: 운명은 낮추기도 높이기도 함 ·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밑줄 의미** to cloak a useless leisure with a pretentious name = 하는 일 없는 여가를 공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 /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 = 어떤 운이 와도 견딜 수 있게 / someone on the rise = 떠오르는 사람 / the material life gave him = 운명이 안긴 처지 전부(좋든 나쁘든). **지칭** ¶1 their(works their way) = the child · it(uses it) = great power · they(came from) = the politician / ¶2 these humble plebeian origins = 군인의 아들 · 클루비아이 출신 / ¶4 that(that of) = the family · these allies = 양부모가 된 부부 · the heirless couple = 같은 부부 / ¶5 that(Fortune does that) = 사람을 낮추거나 높이는 일 / ¶6 either one = 낮추는 운이든 높이는 운이든.

> **한 줄 요약**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 헬비디우스는 스토아 교육을 받고 부유한 집안에 입양되어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고, 운명이 무엇을 주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22-2 트라세아의 사위 — 호민관에서 추방까지 160쪽 ¶7 ~ 161쪽 ¶4

원문 위치 원서 160쪽 ¶7 ~ 161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7 첫 문장	After achieving the first rung of magistracy by winning the post of quaestor in Achaea	전치사 + 동명사 / 관직 · 지명 — 내용 일치 후보
▲	160쪽 ¶7 첫 문장	distinguished himself enough in character and success that he married	enough ~ that(결과)
★	160쪽 ¶7 첫 문장	Thrasea's daughter Fannia	인물 — 서답형 후보(누구의 딸인가)
◆	160쪽 ¶7 둘째 문장	as Brutus had, except the old man was still there	지칭: had = had married into the Cato family / the old man = 트라세아
▲	160쪽 ¶7 셋째 문장	how to, “as citizen, senator, …,” prove “equal to all of life's	how to + (삽입) + 원형 / prove + 형용사 보어
●	161쪽 첫 줄	despising riches, determined in the right, unmoved by fear	반전 후보 unmoved → moved / 분사 병렬
◆	161쪽 첫 줄	a startling transition from his early life in the camps	앞 절 전체에 대한 부연 · 군영 → 로마의 집
★	161쪽 ¶1 첫 문장	By 56 AD, Helvidius won the office of tribune of the plebs	숫자 · 관직 — 내용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1쪽 ¶1 첫 문장	a punitive young treasurer ... abused his authority	반전 후보 punitive → lenient
▲	161쪽 ¶1 둘째 문장	a convincing enough case against Sabinus that Nero stepped in	형용사 + enough + 명사 + that(결과)
●	161쪽 ¶1 둘째 문장	held to a higher standard	어휘 후보: higher ↔ lower
▲	161쪽 ¶2	a begrudging reform that Nero could not have enjoyed having to make	could not have p.p. / enjoy + 동명사
▲	161쪽 ¶3 셋째 문장	Helvidius's alleged sympathies ... were used as evidence	복수 주어 + were / alleged(혐의) 보존
◆	161쪽 ¶3 셋째 문장	against his beloved father-in-law	지칭: 트라세아
▲	161쪽 ¶4 둘째 문장	No sooner had Thrasea's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an	No sooner had S p.p. than ~ 도치
★	161쪽 ¶4 둘째 문장	with their two children to distant Macedonia in exile	숫자 · 지명 — 서답형 후보

내용

헬비디우스는 아카이아의 재무관(quaestor) 자리를 얻어 공직의 첫 단계에 오른 뒤, 성품과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내 트라세아의 딸 판니아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는 브루투스가 그랬듯 카토 집안에 장가드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그 노인, 곧 트라세아가 아직 살아 있어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프리스쿠스는 트라세아에게서 '자유의 정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고, '시민 · 원로원 의원 · 남편 · 사위 · 친구로서' 어떻게 '삶의 모든 의무를 감당하고, 재물을 경멸하며, 옳은 일에 굳건하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지를 배웠다. 프리스쿠스와 새 아내는 로마의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 갔다. 로마 변경의 군영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는 놀라울 만큼 다른 삶이었다. 서기 56년에 이르러 헬비디우스는 평민의 호민관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젊고 가혹한 재무 관리 올부트로니우스 사비누스로부터 지켜 내 이름을 알렸다. 사비누스는 권한을 남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처분하던 사람이었다. 프리스쿠스가 사비누스를 상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하자, 네로가 직접 나서 앞으로 재무 관리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네로로서는 마지못해 한 개혁이었고, 그런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 즐거웠을 리 없다. 다른 여러 스토아처럼 헬비디우스의 정치 경력도 세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경력이 궤도를 벗어나 지배 체제와 공공연히 충돌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서기 66년 트라세아가 네로에 대한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헬비디우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공감했다는 혐의가 그가 사랑한 장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였다. 그 공감은 어쩌면 무심코 한 말에서, 또는 그가 쓴 어떤 글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얼마 뒤 헬비디우스는 트라세아의 자결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트라세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자마자 헬비디우스와 슬픔에 잠긴 아내는 두 자녀와 함께 먼 마케도니아로 추방되었다.

어법

- **After achieving the first rung of magistracy by winning the post of quaestor in Achaea, the young Helvidius distinguished himself enough in character and success that he married Thrasea's daughter Fannia.** : 전치사 after · by + 동명사(achieving · winning). distinguish oneself = 두각을 나타내다(재귀 himself). enough ~ that절 = ~할 만큼 충분히 → 결과(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 Thrasea's daughter Fannia = 동격.

- **It would have been like marrying into the Cato family, as Brutus had, except the old man was still there to teach and to inspire.** : would have p.p. = 실제 일과 견주어 보는 추측(~와 같았을 것이다). like = 전치사 → 동명사 marrying. as Brutus had = 대동사 had(= had married into the Cato family). except (that) + 절 = ~라는 점만 빼고. to teach and to inspire = 목적의 to부정사 병렬.
- **from Thrasea, Priscus learned everything about "the spirit of freedom" and how to, "as citizen, senator, husband, son-in-law, and friend," prove "equal to all of life's duties, despising riches, determined in the right, unmoved by fear."** : learned의 목적어 둘 = everything about ~ 와 how to V. how to와 원형 prove 사이에 as ~ 인용이 끼어 있다. prove + 형용사 보어(equal to ~ = ~을 감당할 만한). despising(현재분사) · determined · unmoved(과거분사)가 병렬로 그 사람됨을 덧붙인다.
- **By 56 AD, Helvidius won the office of tribune of the plebs, where he distinguished himself by defending the poor against a punitive young treasurer, Olbutronius Sabinus, who abused his authority to liquidate their assets.** : By + 시점 = ~까지는(이미). where = office를 받는 계속적 관계부사(그 자리에서). the poor = the + 형용사 → 복수 명사(가난한 사람들) → their assets. who = Sabinus를 받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to liquidate = 목적의 to부정사.
- **Priscus made a convincing enough case against Sabinus that Nero stepped in to declare that future treasury officers would be held to a higher standard.** : 형용사 + enough + 명사(a convincing enough case) ~ that절 = 결과. declare that ~ would = 시제 일치(과거에서 본 미래). be held to a standard = 어떤 기준을 적용받다(수동).
- **It was a begrudging reform that Nero could not have enjoyed having to make.** : It = 앞 문장의 선언. that = reform을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make a reform). could not have p.p. =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했을 리 없다). enjoy + 동명사(변형 → enjoyed to have to make는 오답). have to = ~해야 하다.
- **Helvidius's alleged sympathies for Brutus and Cassius of Julius Caesar's time—perhaps heard in an offhand remark, or in something he had written—were used as evidence against his beloved father-in-law.** : 주어 sympathies(복수) → were(줄표 사이 삽입이 길어도 수 일치는 주어와). alleged = '~라고 하는'(혐의), perhaps(추측) —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 heard = 수동의 과거분사구. something (that) he had written = 대과거.
- **No sooner had Thrasea's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an Helvidius and his grieving wife were sent with their two children to distant Macedonia in exile.** : No sooner had S p.p. than ~ = ~하자마자 …했다. 부정어구가 문장 앞 → had + 주어 도치(변형 → No sooner Thrasea's blood had poured는 오답), 짝은 than(when 아님). grieving = 능동 현재분사(슬퍼하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ung	(사다리의) 단, 단계	step, level	—
magistracy	(로마의) 공직, 관직	public office	—
distinguish oneself	두각을 나타내다	excel, stand out	—
inspire	영감을 주다, 북돋우다	motivate, encourage	discourage
despise	경멸하다	scorn, disdain	admire
unmoved	흔들리지 않는	unshaken, steadfast	moved
startling	놀라운	surprising, striking	unremarkable
frontier	변경, 국경 지대	border, borderland	heartland
punitive	가혹한, 징벌적인	harsh, severe	lenie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buse (v.)	남용하다	misuse	—
liquidate	(재산을) 처분하다	sell off	—
convincing	설득력 있는	persuasive, compelling	unconvincing
begrudging	마지못한	reluctant, grudging	willing
offhand	무심코 한, 즉석의	casual, unplanned	deliberate

내용 일치 아카이아의 재무관 = 공직의 첫 단계 · 성품과 성과로 두각 → 트라세아의 딸 판니아와 결혼 · 브루투스가 카토 집안에 장가든 것과 비슷(장인이 살아 있음) · 타키투스: 자유의 정신 · 삶의 모든 의무 · 로마의 아름다운 집(변경의 군영과 대비) · 56년까지 평민의 호민관 · 사비누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지킴 · 네로가 더 높은 기준을 선언(마지못한 개혁) · 66년 트라세아 기소 · 브루투스 · 카시우스 동조 혐의가 증거로 · 자결을 도움 · 아내 · 두 자녀와 마케도니아로 추방. **밑줄 의미** the first rung of magistracy = 공직 사다리의 첫 단 / equal to all of life's duties = 삶의 모든 의무를 감당할 만한 / a startling transition = 군영에서 로마의 저택으로 바뀐 놀라운 변화 / a begrudging reform = 네로가 마지못해 한 개혁 / careened off course = 경력이 궤도를 벗어나 황제와 충돌함. **지칭** 160쪽 ¶7 he(married) = 헬비디우스 · had(as Brutus had) = had married into the Cato family · the old man = 트라세아 / 161쪽 첫 줄 his new wife = 판니아 / ¶1 their assets =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 ¶2 It = 네로의 선언 / ¶3 it(careened) = 그의 정치 경력 · his beloved father-in-law = 트라세아 / ¶4 his body = 트라세아의 몸.

> **한 줄 요약** 트라세아의 사위가 된 헬비디우스는 호민관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켰지만, 장인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증거로 쓰이고 장인의 자결을 도운 뒤 가족과 함께 마케도니아로 추방되었다.

22-3 돌아온 사람 — 의자 뺏기 놀이와 황제의 개인 이름 161쪽 ¶5 ~ 162쪽 ¶1

원문 위치 원서 161쪽 ¶5 ~ 162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1쪽 ¶5 첫 문장	After two years and Nero's death, Helvidius was recalled to Rome by the emperor Galba.	숫자 · 황제 — 서답형 후보
▲	161쪽 ¶5 둘째 문장	Unlike Rutilius Rufus, who had chosen to stay where he was	unlike(전치사) + 대과거
▲	161쪽 ¶5 둘째 문장	hopeful enough to return	형용사 + enough to V
●	161쪽 ¶5 셋째 문장	Perhaps Nero had been only a bad dream—a passing tyranny	추측 보존 / 반전 후보 passing → lasting
◆	161쪽 ¶6 둘째 문장	the man who had persecuted Thrasea and himself	지칭: himself = 헬비디우스
▲	161쪽 ¶6 셋째 문장	This faith in the institutions of his country were quickly shaken	원서 그대로 were — 주어 faith는 단수(was가 맞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1쪽 ¶6 셋째 문장	Helvidius ended up dropping his charges	내용 일치 후보 / end up -ing
◆	161쪽 ¶6 넷째 문장	the throne resembled a game of musical chairs	밑줄 의미 1순위: 황제가 잇따라 바뀜
▲	161쪽 ¶6 넷째 문장	thus began the so-called “Year of the Four Emperors,” in which	부사 + 동사 + 주어 도치 / in which
★	161쪽 ¶7 첫 문장	barely three months—just enough time for Helvidius to receive permission to bury Galba	숫자 — 내용 일치 1순위
★	161쪽 ¶7 둘째 문장	praetor ... Vitellius, who himself lasted only eight months	관직 ·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61쪽 ¶7 셋째 문장	found himself cornered in 70 AD ... over whether the Senate or the emperor controlled	find oneself + p.p. / 전치사 + whether
★	161쪽 ¶8 둘째 문장	nothing unearned is worth respect	빈칸 1순위
▲	161쪽 ¶8 ~ 162쪽 첫 줄	took to calling the new emperor by his private and not his imperial name	take to -ing(to는 전치사)
★	162쪽 첫 줄	the only senator who chose to address the man as if he was a commoner	True/False 후보 / as if
▲	162쪽 ¶1 첫 문장	a sincere refusal to bow before someone he believed was not his superior	관계절 속 삽입절(he believed)

내용

2년이 지나고 네로가 죽자, 헬비디우스는 갈바 황제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돌아왔다. 머물던 곳에 남아 로마의 광기에서 벗어나기를 택한 루틸리우스 루푸스와 달리, 헬비디우스는 돌아올 만큼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네로는 한낱 악몽, 지나가는 폭정이었을 뿐이고 새 황제는 더 나을지도 몰랐다. 분명 헬비디우스의 첫 행동들은 당시 로마의 안정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드러낸다. 그는 거의 곧바로 트라세아와 자신을 박해한 에프리우스 마르켈루스를 탄핵하는 고발을 했다. 그러나 나라의 제도에 대한 이 믿음은 곧 흔들렸다. 얼마나 많은 다른 원로원 의원이 마르켈루스와 죄를 함께 지고 있었는가, 처형된 반역자의 '아들'(원서 표기 · 실제로는 트라세아의 사위, 160쪽 ¶7)을 지지하는 새 황제의 마음은 얼마나 형편이 좋을 때만의 것이었는가 — 결국 헬비디우스는 고발을 거두었다. 몇 달 만에 갈바가 죽었고, 이른바 '네 황제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해의 황제 자리는 의자 뺏기 놀이 같았다. 다음 황제 오토는 겨우 석 달을 다스렸다. 헬비디우스가 갈바를 묻을 허락을 받을 만큼의 시간이었다. 오토가 죽은 뒤 헬비디우스는 법무관(praetor) 자리에 올랐고, 곧 새 황제 비텔리우스와 맞서게 되었다. 비텔리우스 자신도 여덟 달밖에 버티지 못했다. 결말은 없고 사람만 지치게 하는 의지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이 과정에서, 서기 70년 헬비디우스는 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맞서다 궁지에 몰렸다. 쟁점은 제국의 지출을 원로원이 통제하느냐 황제가 통제하느냐였다. 입법권의 우위를 둘러싼 이 갈등은 실제로 있었다. 그러나 헬비디우스가 군주들에게 보인 스토아다운 경멸, 누군가는 무례라고 부를 만한 그 태도가 긴장을 높인 것도 분명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스스로 얻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존경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트라세아에게서 배운 헬비디우스는 새 황제를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가 시리아에서 개선해 돌아와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그를 평민처럼 대한 원로원 의원은 헬비디우스 한 사람뿐이었다. 법무관으로서 낸 모든 포고에서도 그는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의 칭호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무모함이었을까, 자신보다 위라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는 진심 어린 거부였을까? 아니면 원로원이 참아야 했던 하찮은 지도자들의 끝없는 행렬에 그저 지친 것이었을까?

어법

- **Unlike Rutilius Rufus, who had chosen to stay where he was, free of Rome's insanity, Helvidius was hopeful enough to return.** : unlike = 전치사(~와 달리). had chosen = 대과거(헬비디우스의 귀환보다 앞선 선택). where he was = stay 뒤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머물던 곳에). free of ~ = ~에서 벗어난(형용사구). 형용사 + enough to V(변형 → enough hopeful to는 오답).
- **Perhaps Nero had been only a bad dream—a passing tyranny—and the new emperor would be better.** : 헬비디우스가 품었을 기대를 저자가 옮긴 문장 — 과거완료 had been(그때까지의 네로) + would(그때에서 본 미래). perhaps = 추측(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 a passing tyranny = a bad dream의 동격, passing = 지나가는(현재분사가 형용사로).
- **This faith in the institutions of his country were quickly shaken—how many other senators shared guilt with Marcellus, how fair-weather was the new emperor's support of the son of an executed traitor—and Helvidius ended up dropping his charges.** : 주어는 This faith(단수)이므로 was가 맞다 — 원서의 were는 가까이 있는 institutions에 끌린 수 일치 오류(따라 쓰지 말 것). 줄표 안 =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how ~ 물음 둘로 나열(둘째는 how + 형용사 + was + 주어 어순). end up -ing = 결국 ~하게 되다.
- **Within months, Galba was dead, and thus began the so-called "Year of the Four Emperors," in which the throne resembled a game of musical chairs.** : 부사 thus가 앞에 오면서 동사 began과 주어(the so-called Year ~)가 도치.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그해에). resemble은 타동사(변형 → resembled to는 오답).
- **Otho, the next emperor, would serve for barely three months—just enough time for Helvidius to receive permission to bury Galba.** : the next emperor = Otho의 동격.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barely = 겨우(부정에 가까운 뜻). enough + 명사(time) + for 의미상 주어 + to V. permission to bury = 명사를 꾸미는 to부정사.
- **In what must have seemed like an endless series of unresolved but exhausting battles of wills, Helvidius found himself cornered in 70 AD, in opposition to the new emperor, Vespasian, over whether the Senate or the emperor controlled the empire's spending.** : 전치사 In + what절(~처럼 보였을 것). must have p.p. = 저자의 추측. find oneself + p.p.(cornered) = 어느새 ~된 처지에 놓이다. 전치사 over 뒤 명사절 = whether A or B(변형 → over that은 오답).
- **We are told that Helvidius, who had learned from Thrasea that nothing unearned is worth respect, took to calling the new emperor by his private and not his imperial name.** : 주어 Helvidius와 동사 took 사이에 who절이 끼어 있다. nothing unearned = -thing + 형용사(과거분사) 후치. is =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 현재 시제. take to -ing = ~하기 시작하다(to는 전치사 — 변형 → took to call은 오답). his private and not his imperial name = name을 두 형용사가 나눠 꾸민다.
- **Was it recklessness or a sincere refusal to bow before someone he believed was not his superior?** : someone (who) he believed was ~ = 관계절 속에 he believed가 끼어든 삽입절 구조.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was의 주어이므로 주격 who(whom이 아니다). refusal to V = 명사를 꾸미는 to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call	(본국으로) 불러들이다	call back, summon	banish
insanity	광기	madness, lunacy	sanity
passing	지나가는, 일시적인	temporary, fleeting	lasting
naive	순진한	innocent, credulous	worldly
impeachment	탄핵	indictment	—
persecute	박해하다	oppress, harass	protect
fair-weather	형편이 좋을 때만의	unreliable, fickle	loyal
resemble	닮다, ~와 비슷하다	look like	differ from
at odds with	~와 맞서는, 불화하는	in conflict with	in agreement with
supremacy	우위, 최고 권력	dominance	inferiority
disdain	경멸	contempt, scorn	respect
impudence	무례, 뻔뻔함	insolence, cheek	courtesy
unearned	스스로 얻지 않은	undeserved	earned
recklessness	무모함	rashness	caution

내용 일치 2년 뒤 · 네로가 죽은 뒤 갈바가 소환 ·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머물던 곳에 남음 · 헬비디우스는 희망을 품고 돌아옴 · 마르켈루스 탄핵 고발 → 고발을 거둠 · 몇 달 만에 갈바 사망 · 네 황제의 해 · 오토 겨우 석 달(갈바 매장 허가) · 오토가 죽은 뒤 법무관 · 비텔리우스 여덟 달 · 70년 베스파시아누스와 지출 통제권 다툼 · 경멸이 긴장을 높임 · 개인 이름으로 부름 · 시리아에서 개선한 뒤에도 그를 평민처럼 대한 유일한 원로원 의원 · 포고에 칭호를 쓰지 않음. **밑줄 의미** a bad dream—a passing tyranny = 곧 지나갈 일시적 폭정 / a naive faith = 로마의 안정을 너무 쉽게 믿음 / fair-weather = 형편이 좋을 때만의(지지) / a game of musical chairs = 황제가 잇따라 바뀜 / nothing unearned is worth respect = 스스로 얻지 않은 지위 · 칭호는 존경할 까닭이 없음 / two-bit leaders = 하찮은 지도자들. **지칭** 161쪽 ¶5 he(where he was) = 루틸리우스 / ¶6 himself = 헬비디우스 · This faith = 로마 제도에 대한 순진한 믿음 · the son of an executed traitor = 헬비디우스(처형된 반역자 = 트라세아 · 원서는 son이라 썼지만 160쪽 ¶7로는 사위) / ¶7 who himself(lasted) = 비텔리우스 / ¶8 these conflicts = 원로원과 황제의 지출 통제권 다툼 / 162쪽 첫 줄 the man = 베스파시아누스 / ¶1 it(Was it ~?) = 황제를 평민처럼 대한 태도 · someone = 베스파시아누스.

> **한 줄 요약** 로마로 돌아온 헬비디우스의 순진한 믿음은 황제가 잇따라 바뀌는 혼란 속에 흔들렸고, 그는 스스로 얻지 않은 것은 존경할 가치가 없다는 원칙대로 베스파시아누스를 평민처럼 대했다.

22-4 황제의 몫과 나의 몫 — 처형, 그리고 1,927년 뒤의 상원 162쪽 ¶2 ~ 163쪽 둘째 인용

원문 위치 원서 162쪽 ¶2 ~ 163쪽 둘째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2 셋째 문장	Epictetus provides us an exchange that portrays the man as utterly fearless	provide + IO + DO / portray A as B
▲	162쪽 인용	It is in your power not to allow me … but so long as I am, I must go in	가주어 It + 진주어 / so long as + 생략
◆	162쪽 인용	it is your part to kill; it is mine to die, but not in fear	밑줄 의미 · 빈칸 1순위: 황제의 몫과 나의 몫
●	162쪽 인용	When then did I tell you that I am immortal?	반전 후보 immortal ↔ mortal
★	162쪽 ¶3	You do your job, I'll do mine … Let everything else come what may.	요지 · 제목 후보
▲	162쪽 ¶4 첫 문장	must have known that this approach was not long for this world	must have p.p. / 관용 표현
★	162쪽 ¶4 둘째 문장	the new Capitol building and … the new temple of Jupiter Capitolinus	내용 일치 후보
◆	162쪽 ¶4 셋째 문장	a kind of lonely but hopeful figure	밑줄 의미: 외롭지만 희망을 놓지 않음
▲	162쪽 ¶6 첫 문장	tired of being toyed with and undermined	분사구문 + 동명사 수동 / 전치사 with 남음
◆	162쪽 ¶6 둘째·셋째	kept the exile close so that he could keep an eye on him … a death row holding cell	지칭: him = 헬비디우스 / 삽입 후보
▲	162쪽 ¶8 첫 문장	it was not words that defined his legacy but his actions	It was not A but B that 강조
★	162쪽 ¶8 둘째·셋째	Epictetus was inspired by him. Marcus Aurelius held him up as an example.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62쪽 ¶8 넷째 문장	1,927 years later … the senator Robert Byrd	숫자 · 인물 — 서답형 후보
▲	162쪽 ¶8 넷째 문장	had also grown up poor and had been adopted, but came to fall in love with	grow up + 형용사 / 과거완료 수동 / come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3쪽 첫 인용	let us take a leaf out of Roman history	밑줄 의미: 로마 역사를 본받자
▲	163쪽 ¶1	When asked why he gave this speech, Byrd managed to unintentionally provide	접속사 + p.p. 분사구문 / manage to V

내용

시간이 지나며 이 무례는 더 뚜렷해졌다. 수에토니우스는 헬비디우스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직접 맞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에픽테토스는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 낸 문답을 남겼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헬비디우스를 불러 원로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를 원로원 의원으로 두지 않는 것은 폐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인 한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 “좋다, 그럼 들어가라.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 의견을 묻지 않으시면 잠자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죽이겠다.” “제가 언제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폐하는 폐하의 몫을, 저는 저의 몫을 할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폐하의 몫이고, 죽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다만 두려움 없이. 추방하는 것은 폐하의 몫이고, 슬픔 없이 떠나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너는 네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스토아는 말한다. 너는 악하라, 나는 선하겠다. 나머지는 무엇이 오든 오게 두라. 헬비디우스는 이런 태도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로마에서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새 카피톨 건물의 건설과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의 봉헌을 감독할 만큼은 버텼다. 타키투스의 글에서 헬비디우스는 외롭지만 희망을 품은 인물로 서 있다. 국가가 공공선을 섬기고 제대로 돌아가는 공화정이 황제들의 지나침과 플라비우스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승계를 압도하는, 더 평화로운 시대를 향해 과거로든 미래로든 손을 뻗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놀림당하고 권위가 깎이는 데 지친 베스파시아누스는 다시 한번 헬비디우스를 추방하기로 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를 지켜볼 수 있도록 유배지를 가까이 둔 것은 아마 헬비디우스가 여전히 지닌 힘을 말해 줄 것이다. 사실 그곳은 사형수의 감방에 더 가까웠다. 얼마 뒤 베스파시아누스는 헬비디우스의 처형을 명했다. 헬비디우스의 아내는 훗날 남편의 삶을 기리는 작품을 의뢰했지만, 가장 뛰어난 스토아들이 그렇듯 그의 유산을 정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에픽테토스는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를 본보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1,927년 뒤, 역시 가난하게 자라 입양되었지만 자기 나라의 입법 기구를 사랑하게 된 또 한 사람, 상원 의원 로버트 버드가 여든다섯의 나이에 상원 연단에 올라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저지르는 월권에 항의했다.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는 자기 생각을 말했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그를 죽였습니다. 이 나약한 시대에 용기에 관해 읽는 것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대통령이 신념에 어긋날 수도 있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라고 말하거나 재촉하면 겁을 먹는 듯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큰 용기를 지닌 사람이 드문, 비교적 드문 이 시대에 로마 역사를 본받아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를 기억합시다.” 왜 이 연설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버드는, 의도하지 않게 헬비디우스의 삶과 네로와 그 후계자들의 치세에 맞서다 죽은 용감한 스토아들의 삶에서 얻을 완벽한 교훈을 내놓았다. “제게 그 질문은 요점을 벗어납니다. 이 일은 천 년 동안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헌법을 위해 섰습니다. 이 기구를 위해 섰습니다. 오늘 들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미래의 어떤 의원이 와서 이 두꺼운 책들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어법

- **It is in your power not to allow me to be a member of the senate, but so long as I am, I must go in.** : 가주어 It + 진주어 not to allow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allow + O + to V. so long as = ~하는 한(조건). I am 뒤에 a member of the senate가 생략됐다.
- **You will do your part, and I will do mine: it is your part to kill; it is mine to die, but not in fear: yours to banish me; mine to depart without sorrow.** : mine = my part, yours = your part(소유대명사). 가주어 it

+ 진주어 to kill · to die. 뒤쪽 yours to banish me; mine to depart ~는 it is를 생략한 반복 구조. but not in fear = 죽되 두려움 속에서 죽지는 않는다.

- **You do your job, I'll do mine, the Stoic says. You be evil, I'll be good. Let everything else come what may.** : You be evil = 주어 You를 밝힌 명령문(대조를 강조, 동사는 원형 be). let + O + 원형(come). come what may = 무슨 일이 닥치든(관용 표현).
- **Vespasian, tired of being toyed with and undermined, decided to banish Helvidius once again.** : tired of ~ = 이유의 분사구문(being 생략)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 있다. 전치사 of + 수동 동명사 being p.p. — toy with의 with가 끝에 남고(being toyed with), undermined도 being에 함께 걸린다.
- **It likely says something about the power Helvidius still held that Vespasian kept the exile close so that he could keep an eye on him.**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Vespasian kept ~). likely = 아마(저자의 추측). the power (that) Helvidius still hel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keep + O + 형용사(close). so that + could = 목적. him = the exile(헬비디우스).
- **it was not words that defined his legacy but his actions.** : It was not A but B that ~ 강조구문 — but his actions를 that절 뒤로 보낸 원서 어순(= it was not words but his actions that defined his legacy). 강조 구문의 연결어는 that(변형 → what은 오답).
- **another man who had also grown up poor and had been adopted, but came to fall in love with the legislative body of his country—the senator Robert Byrd—would take to the floor of the Senate** : grow up + 형용사 보어(poor). had been adopted = 과거완료 수동. come to V = ~하게 되다. 줄표 사이 = another man의 동격.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훗날 ~하게 된다). take to the floor = 발언하러 단상에 서다.
- **When asked why he gave this speech, Byrd managed to unintentionally provide the perfect lesson from Helvidius Priscus's life and those of the brave Stoics** : When (he was) asked = 접속사를 남긴 수동 분사구문. why he gave = 간접의문문 어순. manage to V = 용케 ~해내다. to unintentionally provide = to와 원형 사이에 부사가 낀 분리 부정사. those = the live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nounced	뚜렷한, 두드러진	marked, noticeable	faint
portray	그리다, 묘사하다	depict, describe	—
immortal	죽지 않는	undying, deathless	mortal
banish	추방하다	exile, expel	recall
depart	떠나다	leave, go away	arrive
oversee	감독하다	supervise	—
eclipse (v.)	능가하다, 무색하게 하다	outshine, overshadow	—
excess	지나침, 무절제	extravagance	moderation
undermine	(권위를) 약화시키다	weaken, subvert	strengthen
commission (v.)	(작품을) 의뢰하다	order, request	—
legacy	유산, 남긴 것	heritage	—
overreach (n.)	월권, 도를 넘음	overstepping	restraint
instructive	배울 점이 있는, 교훈적인	enlightening	—
tome	두꺼운 책	volume	—

내용 일치 무례가 더 뚜렷해짐 · 수에토니우스: 직접 반대 · 에픽테토스가 문답을 전함 · 원로원에 가지 마라 → 의원인 한 간다 · 말하지 마라 → 묻지 않으면 침묵 · 죽이겠다 → 죽지 않는다고 한 적 없다 · 황제의 몫 = 죽이고 추방함 / 나의 몫 = 두려움 없이 죽고 슬픔 없이 떠남 · 카피톨 건물 ·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 신전 봉헌 감독 · 타키투스: 외롭지만 희망을 품은 인물 · 다시 추방(가까이 둠) · 처형 명령 · 아내가 기념 작품을 의뢰 · 에픽테토스 · 마르쿠스 · 1,927년 뒤 버드(가난 · 입양 · 85세) · 헬비디우스를 기억하자 · 헌법과 기구를 위해 섰다. **밑줄 의미** it is mine to die, but not in fear = 죽음은 받아들이되 두려워하지는 않음 / come what may = 무슨 일이 닥치든 / not long for this world = 오래가지 못할 / a death row holding cell = 처형을 기다리는 감방 / take a leaf out of Roman history = 로마 역사를 본받다 / misses the point = 요점을 벗어남. **지칭** 162쪽 ¶2 the man = 헬비디우스 / 인용 he(replied) = 헬비디우스 · I am(뒤에 생략) = 원로원 의원 · mine = my part / ¶4 this approach = 너는 네 일을, 나는 내 일을 한다는 태도 / ¶6 the exile · him = 헬비디우스 · he(could keep) = 베스파시아누스 / ¶8 him(inspired by him) = 헬비디우스 · another man = 로버트 버드 / 163쪽 ¶1 this speech = 첫 인용의 연설 · that question = 왜 연설했느냐는 질문.

> **한 줄 요약** 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말한 헬비디우스는 결국 처형되었지만, 그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아 1,927년 뒤 미국 상원에서 다시 불렸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22 HELVIDIUS]

범위	Helvidius Priscus the Senator (원서 PDF 159~163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doption changed everything for Helvidius. The boy who had been just the common-born son of a man nobody knew was now a young man going places. Seneca once observed that luck works this way: it can pull a person down or lift him up, and it can shatter hearts as easily as it hands out happy chances. What counts, then, is not which kind of luck comes our way but how we use it. Helvidius had been schooled in Stoic thought, and he was determined not to let anything that life placed in his hands go to waste.

① Enjoy good fortune while it lasts, for it soon passes.
② What matters is how we use whatever fortune brings us.
③ People of humble birth should not seek high positions.
④ Hardship shapes character better than good luck does.
⑤ Adoption is the surest road to success in public lif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ccording to Suetonius, Helvidius eventually began to attack Vespasian openly. Epictetus records a conversation that shows just how unafraid the senator was. Vespasian summoned him and ordered him to stay out of the Senate. Helvidius answered that the emperor could take away his seat, but while he still held it, he had to attend. Then attend, said Vespasian, but keep quiet. Don't ask for my view and I'll be silent, came the reply; if asked, I am bound to speak whatever I believe is right. When the emperor threatened him with death, Helvidius calmly said he had never claimed he could not die. Each had a role: the emperor's was to kill, and his own was to die without fear.

① Your Part and Mine: A Senator Who Would Not Be Silenced
② How Vespasian Won the Senate's Loyalty
③ Why Helvidius Chose to Leave the Senate
④ An Emperor Who Feared His Own Death
⑤ Silence: The Wisest Policy for a Senato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one once asked Senator Robert Byrd why he had given his speech about Helvidius Priscus. Without meaning to, Byrd offered an answer that sums up the lesson of Helvidius's life and of the courageous Stoics who died resisting Nero and the emperors after him. With respect, Byrd said, the question was beside the point. What he had said would remain in the official record for a thousand years. He had taken a stand for the Constitution and for the institution he served. Even if nobody listened today, some lawmaker in the future would come along, search carefully through those heavy volumes, and find it.

① Politicians should always explain their speeches to anyone who asks.
② Old records are seldom read by lawmakers of later ages.
③ A principled stand is worth taking even if no one hears it now, because the record endures.
④ Speeches about ancient history have little value for modern politics.
⑤ The Constitution matters more than the institutions it created.

4. 밑줄 친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ecause we know when Helvidius first held public office, we can be fairly sure that he was born no later than 25 AD, and he must have been a serious, hard-working student from childhood. Tacitus reports that the young man poured his remarkable gifts into advanced learning. Unlike most young people, he did not study merely to give a grand label to idle free time. He studied so that, when he entered public service, he would be better fortified against the chances of fortune. Tacitus adds that his first teachers were Stoics. In their view, only what is morally right is good and only what is shameful is bad, while power, noble birth, and everything else outside the will's control is neither.

① more likely to grow rich through good fortune
② better able to withstand whatever luck might bring
③ protected by powerful friends in the government
④ trained to predict future events accurately
⑤ ready to profit from other people's bad luck

5. 밑줄 친 a game of musical chai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elvidius's first moves after his return show that he trusted too much in Rome's stability. Almost at once he brought formal charges against Eprius Marcellus, who had persecuted both Thrasea and Helvidius himself. But his confidence in the country's institutions soon weakened. How many other senators had shared Marcellus's guilt? And would the new emperor's support last if times turned bad? In the end Helvidius gave up the charges. Only months later Galba was dead, and what came to be called the Year of Four Emperors began, a period during which the imperial seat became a game of musical chairs.

① Senators competed fiercely for seats in the Senate.
② The emperor amused himself with games at court.
③ Power was shared equally among four rulers.
④ Emperors replaced one another in quick succession.
⑤ The throne stood empty for a whole year.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fter ① he became quaestor in Achaea, the lowest step on the ladder of Roman offices, the young Helvidius showed such strength of character and such success that ② he was able to marry Thrasea's daughter, Fannia. Marrying her would have been rather like joining Cato's family, as Brutus once did, except for one thing: Thrasea was still alive, so ③ he could teach and inspire the young man in person. Tacitus tells us that it was from Thrasea that ④ he learned all about freedom of spirit and how to meet every duty of life—as a citizen, a senator, a husband, a son-in-law, and a friend. Later, ⑤ he and Fannia settled in a lovely house in Rome, far from the army camps of his boyhood.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Otho, the emperor who came next, held power for hardly three months, but that was long enough for Helvidius to get permission to bury Galba. Once Otho had died, Helvidius became praetor, and in that post he soon clashed with the new ruler, Vitellius, whose own reign lasted a mere eight months. To Helvidius the struggles must have felt endless: one tiring contest of wills followed another, and none was ever settled. In 70 AD he found himself trapped in a quarrel with yet another emperor, Vespasian. At issue was who had the final say over the money the empire spent—the emperor or the Senate.

① 오토는 1년 가까이 황제 자리에 있었다.
② 헬비디우스는 오토가 살아 있을 때 법무관이 되었다.
③ 헬비디우스는 비텔리우스와 처음부터 뜻이 잘 맞았다.
④ 70년의 다툼은 군대의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를 둘러싼 것이었다.
⑤ 헬비디우스는 오토가 다스리던 동안 갈바를 묻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Children who start with little and climb all the way to their nation's highest governing body make for a familiar story. A politician rises from nothing, gains great power, and then uses that power to help the very people from whom he came. We see this pattern in the lives of Henry Clay and Abraham Lincoln, and again in those of Angela Merkel and Margaret Thatcher. Helvidius Priscus belongs on the list as well. His father was a soldier posted in southern Italy, in the lands of the Caraceni people in the Samnium region, and Helvidius was born at Cluviae. From these modest, common beginnings he went on to become an important figure in Roman life, and his career lasted through the rule of five emperors.

① 헬비디우스의 삶은 링컨이나 대처 같은 정치인의 이야기와 닮았다.
② 헬비디우스의 아버지는 남부 이탈리아 주둔 군인이었다.
③ 헬비디우스는 클루비아이에서 태어났다.
④ 헬비디우스는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⑤ 헬비디우스의 경력은 다섯 황제의 치세에 걸쳐 있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Helvidius, ① like Gallio, the brother of Seneca, and like Scipio many generations earlier, entered a rich and powerful family through adoption. This was probably the household of the Helvidius Priscus who ② had been a legate under Quadratus, governor of Syria. Exactly how the young man, who took on his new family's name, ③ came to know these supporters, we cannot say. Possibly his adoptive father had been a soldier alongside members of his birth family. Or possibly the gifted youth's promise as a student ④ impressed the heirless couple. Either way, the son of a common soldier ⑤ becoming part of a powerful hous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elvidius's wife later arranged for a work honoring her husband's life. Yet, as was true of the finest Stoics, it was his deeds, not anyone's words, (A) [that / what] defined what he left behind. Epictetus drew inspiration from him, and Marcus Aurelius pointed to him as a model. Then, after 1,927 years had passed, an American senator, Robert Byrd, called him to mind. Byrd had been a poor boy, and he too (B) [had been adopted / had adopted]. He grew to love his country's legislature, and at the age of eighty-five he rose in the Senate chamber (C) [to protest / protested] the way his own president was overstepping his powers for the sake of "security."

	(A)	(B)	(C)
①	that	had been adopted	to protest
②	what	had adopted	to protest
③	that	had adopted	protested
④	what	had been adopted	protested
⑤	that	had been adopted	protest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arly in his career, Helvidius stood on the side of ordinary Romans. By 56 AD he had become tribune of the plebs, and in that office he made a name for himself by protecting the poor from Olbutronius Sabinus, a young treasury official who was ① harsh in his dealings. Sabinus ② misused his power, selling off what poor people owned. Helvidius argued against him so ③ feebly that Nero himself stepped in and announced that from then on treasury officials would be held to ④ higher standards. It was a reform Nero made ⑤ reluctantly; he can hardly have enjoyed being forced into i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struggle between Senate and emperor for supreme authority was real enough. But Helvidius's Stoic contempt for rulers, which some might label insolence, no doubt made the strain worse. Thrasea had taught him that _____, and he lived by that lesson. He started addressing Vespasian by his personal name instead of his imperial one. Even at the peak of Vespasian's glory, just after his triumphant return from Syria, no other senator but Helvidius spoke to him as if he were an ordinary man, and none of the edicts Helvidius issued as praetor gave Vespasian his royal titles.

① nothing that has not been earned deserves respect
② the titles of an emperor must always be honored
③ silence is the safest answer to those in power
④ a senator should obey the emperor in all things
⑤ respect is owed to everyone of noble birth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 truth, this nearby place of exile was more like a prison cell for a man awaiting execution.

Helvidius must surely have known that such defiance could not last long in this world, or at any rate in Rome. (①) Even so, he held out long enough to supervise the building of the new Capitol and the consecration of Jupiter Capitolinus's new temple. (②) Tacitus pictures him as a lonely but hopeful man, reaching toward a calmer age in which the state served the common good and a working republic outshone the excesses of emperors. But that age never arrived. (③) Weary of being mocked and weakened, Vespasian decided to drive Helvidius into exile a second time. (④) That the emperor kept the exile nearby to watch him probably shows how much power Helvidius still had. (⑤) Before long, Vespasian gave the order for his execution.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Helvidius's exile in faraway Macedonia did not last forever. ① Two years later, after Nero had died, the emperor Galba summoned him back to Rome. ② Marcus Aurelius would one day point to Helvidius as an example worth following. ③ Rutilius Rufus had once made a very different choice, remaining where he was, safely away from the madness of Rome. ④ Helvidius, by contrast, still had enough hope to go home. ⑤ Maybe Nero's rule had been nothing more than a bad dream, a tyranny that would soon pass, and the next ruler would prove bette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 with several other Stoics, we know little about the details of Helvidius's political career—until it swerved off course into an open clash with the ruling powers.

(A) Soon afterward, Helvidius received a request to assist Thrasea in ending his own life. The moment Thrasea's blood had drained from his veins, Helvidius, his grieving wife, and their two children were sent away to faraway Macedonia.

(B) That turning point came in 66 AD, when Thrasea was put on trial, charged with plotting against Nero.

(C) Helvidius was said to admire Brutus and Cassius, the men of Julius Caesar's day—an impression that may have come from a careless remark or from something he had written. Either way, it was used as evidence against the father-in-law he love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his speech, Byrd reminded the Senate of a short, plain story: Helvidius Priscus said what he really thought, and the emperor Vespasian put him to death. In an age that Byrd considered soft, he said, reading about such bravery teaches us something. Some member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as he saw it, were apparently terrified whenever the president told them, or pressed them, to vote in a way that might go against their own convictions. At a time when men of great courage were few—relatively few, he added—Byrd urged his colleagues to learn a lesson from Roman history and to keep Helvidius Priscus in mind.

→ Byrd held up Helvidius, who (A) _____ and was killed for it, as a lesson for lawmakers who were too (B) _____ to vote by their own beliefs.

① kept silent ..... frightened
② spoke his mind ..... frightened
③ spoke his mind ..... eager
④ obeyed the emperor ..... willing
⑤ fled from Rome ..... ready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Helvidius Priscus was born in Cluviae, a soldier's son, and rose from humble beginnings; only later was he adopted into a wealthy family. He married Fannia, the daughter of Thrasea. After Thrasea's death, Helvidius was sent into exile in distant Macedonia with his wife and children. Two years later, after Nero died, the emperor Galba called him back to Rome. Helvidius later clashed with Vespasian, calling him by his private name instead of his imperial titles. The Stoic Epictetus recorded their famous exchange, in which Helvidius told Vespasian that killing was the emperor's part and dying without fear was his own.

<QUIZ>

(1) In which town was Helvidius born?
Answer for (1): _____

(2) Whose daughter did Helvidius marry?
Answer for (2): _____

(3) To which land was Helvidius exiled after Thrasea's death?
Answer for (3): _____

(4) Which emperor called Helvidius back to Rome?
Answer for (4): _____

(5) Which emperor did Helvidius call by his private name?
Answer for (5): _____

(6) Which Stoic recorded Helvidius's exchange with the emperor?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Helvidius was born into a wealthy famil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Galba	N. Macedonia
B. Nero	O. Epictetus
C. Rome	P. Padua
D. Syria	Q. Suetonius
E. Thrasea	R. False
F. Otho	S. Cluviae
G. Seneca	T. Vespasian
H. True	U. Brutus
I. Vitellius	V. Marcus Aurelius
J. Fannia	W. Samnium
K. Achaea	X. Athens
L. Tacitus	Y. Byrd
M. Cato	Z. Gallio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25년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진지한 학생이었음이 틀림없다. (must have p.p.)

02 그가 이 후원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간접의문문을 문장 앞으로)

03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what절 주어 + what절 보어)

04 그것은 카토 집안에 장가드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would have p.p. / like + 동명사)

05 그는 사비누스를 상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해서 네로가 직접 나섰다. (형용사 + enough + 명사 + that)

06 트라세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자마자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보내졌다. (No sooner had ~ than)

07 헬비디우스는 돌아올 만큼 희망을 품고 있었다. (형용사 + enough to V)

08 그리하여 이른바 '네 황제의 해'가 시작되었다. (부사 + 동사 + 주어 도치)

09 그는 새 황제를 개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take to -ing)

10 제가 의원인 한,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 (so long as)

11 놀림당하는 데 지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를 다시 추방하기로 했다. (분사구문 tired of being p.p.)

12 그의 유산을 정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It was not A but B that)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헬비디우스의 출생 / 출신지 / 사망(159쪽 표제)	
아버지의 직업 / 출신지가 있는 지방 · 부족	
같은 이야기로 든 정치인 넷	
어린 시절의 스승들 / 그들이 선으로 여긴 것	
입양의 선례 둘 / 양가로 추정되는 집안	
중요한 것(160쪽 ¶6)	
첫 공직 / 그 자리를 얻은 곳	
아내 / 장인	
56년까지 오른 자리 / 맞선 상대	
66년 트라세아의 혐의 / 증거로 쓰인 것	
추방지 / 함께 간 사람	
소환한 황제 / 몇 년 뒤	
탄핵 고발의 상대 / 결과	
오토의 재위 / 비텔리우스의 재위	
70년의 쟁점	

항목	답
황제와의 문답을 전한 사람 / 황제의 몫 · 나의 몫	
감독한 공사 / 마지막 처분	
헬비디우스를 연설에서 부른 상원 의원 / 몇 년 뒤 · 나이	

4-3. 통합 사고 문제 — 21장과 22장을 잇는 자리

문제

21장에서 원로원은 트라세아를 죽이고 그의 사위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를 추방하기로 의결했고(156쪽 ¶8), 트라세아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되울리며 네로에 관해 한 문장을 남긴 뒤(157쪽 ¶1) 데메트리오스와 헬비디우스가 함께한 방에서 죽음을 맞았다(157쪽 ¶3~¶4). 22장의 헬비디우스는 바로 그 트라세아에게서 '자유의 정신'을 배웠고(160쪽 ¶7), 베스파시아누스 앞에서 죽이는 것은 황제의 몫이고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162쪽 인용). 트라세아의 그 문장을 영어로 완성하고, 장인과 사위가 황제 앞에서 보인 태도를 비교하는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1장 또는 22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트라세아의 말: Nero can kill me, but he cannot _____ me.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